

농산물 택배비 지원 '주목'

임실군, 코로나 경제 위기 속 효자정책 재조명... 올해 3억5300만원 투입

임실군이 일찍부터 시행 중인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코로나 경제 위기 속 효자정책으로 재조명되며 주목받고 있다.

군은 민선 6기를 전후해 오래 전부터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 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은 임실군에 실제 거주하는 생산자단체 회원으로 판의 지역에 발송한 농산물에 대하여 지원하며 소비자에게 택배로 판매했을 경우 1000원에서 1400원 상당의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임실군이 일찍부터 시행 중인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코로나 경제위기 속 효자정책으로 재조명되며 주목받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임실쌀인 '해보드미'와 농특산물에 대하여 지원 농가의 경영안정과 판매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도입, 시행한 정책이다.

지난해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4만건의 택배비를 지원해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는 3억5300만원을 투입해 27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유통비용의 증가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타지역과의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와 온라인 마켓의 지속적인 성장 등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대책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농산물 소비와 판매가 축소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는 대비와 같은 정책으로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졸업식, 입학식, 지자체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어 타격을 입은 화훼농가의 유통비용을 절감,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들 화훼농가들은 기존 도매시장들

과, 소비자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꽃을 판매하는 전략으로 온라인과 택배 사업으로 방향을 돌려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심민 군수는 "수입농산물 증가와 맞물려 코로나19 장기화 팬데믹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감소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택배비 지원을 통하여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하고, 청정임실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많이들 구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순항

사업비 24억원 투입해 노인·청소년 위한 복합시설로 조성중

순창군이 먼 단위 외곽지역 청소년을 위해 조성중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24억원을 들여 순창군 북동면 소재지 일원에 연면적 798㎡에 2층 규모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중이다.

더욱이 군은 먼 단위지역이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 같은 건물에 노인교실을 조성, 노인인 청소년이 모두 한 곳에서 즐길 수 있게 복합시설로 조성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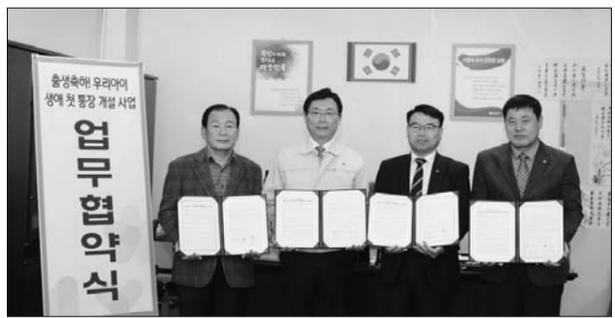
현재 순창군에는 읍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중이지만, 쌍치나 복흥 등 외곽지역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상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지난 2018년부터 관련부처 등을 오가며 사업비 확대에 공을 들였으며, 그 결과 24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주민설명회와 여성가족부 설계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지난 2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서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군은 이른바 하반기에 위탁자를 모집해 이듬해 상반기부터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중에 제약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 1층에는 노인교실을, 2층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마련한다. 1층에는 강의실과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이, 2층에는 동아리활동실과 실내운동실, 다목적활동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공간적 제약으로 학업외에 다양한 끼를 갖고 있음에도 분출하기 어려웠던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또 다른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24일 관내 3개 새마을금고(남원새마을금고, 남원중앙새마을금고, 동남원새마을금고)와 출산지원협력 MOU를 체결했다.

남원시, 관내 3개 새마을금고와 협약 체결

저출산 극복·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위해 출산지원 협력키로

남원시가 남원지역 새마을금고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24일 관내 3개 새마을금고(남원새마을금고, 남원중앙새마을금고, 동남원새마을금고)와 출산지원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0년 1월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에서는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10만원의 출생 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남원시에 주소 등록이 되어야 한다.

단, 읍면동 사업안내와 홍보 등 업무 준비기간이 필요해, 통장개설은 4월부터

가능하다.

생애 첫 통장 개설 방법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아기 기준 기본증명서(상세용),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부모 또는 아기도장)를 지참해 해당 새마을금고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 보건소(620-7941)로 문의하면 된다.

이환주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저출산 극복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의 상호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적기영농 위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호응'

올해 34억원 사업비 투입... 적기 영농 단계별 농기계 공급 도와

남원시가 농업 생산비 증가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적기영농에 도움이 되고 있다.

남원은 전청정환경의 '영농1번지'로 운봉·인월·아영·산내 등 지리산 고랭지와 중평야부, 송동·주생·금지·대강 등 평야부의 천혜 환경으로 고품질 쌀을 비롯해 다양한 명품 농산물이 연중 생산 전국에 출하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농기계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적기에 영농 단계별 농기계를 공급토록 하면서 농가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에서는 금년에 34억원(보조금 10억원, 자부담 2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트랙터, 콤팩트, 승용이앙기, 육묘용과종기, 논두렁조성

기, 육묘상자적재기, 측조시비기 등 14종 262대를 준비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2019년 34억원(보조금 10억원, 자부담 24억원), 2018년 32억원(보조금 10억원, 자부담 22억원), 2017년 17.8억원(보조금 6억원, 자부담 11.8억원), 2016년 37.2억원(보조금 11억, 자부담 26.2억원) 등 매년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620-6381)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자원봉사자, 코로나19 극복 위해 수제 면 마스크 제작 나서

순창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국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김삼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순창군여성회관에서 양재반 수강생 등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90여명의 도움을 받아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제작에 나섰다.

이에 센터는 1250여 개의 면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정성껏 만든 마스크는 쓰는 사

람의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마음까지 치유해주시기 충분하다"며 "이러한 온정으로 코로나19도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보건소,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남원시보건소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집중관리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경제적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보유에 해당하는 552가구로, 전문인력 47명이 직접 방문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고 손소독제 제공 및 올바른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담에 나선다.

이순례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관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준수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공공스포츠클럽, 방역봉사 동참

남원공공스포츠클럽(회장 진봉모, 이하 클럽)은 남원시민과 지역 소외계층 등의 코로나19 안전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방역봉사에 동참했다.

클럽은 지난 23일부터 전 직원을 동원해 코로나19 안전극복을 위해 클럽과 업무협약기관, 공공스포츠클럽 회원 사업장 및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정일식)를 통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원봉사를 실시중이다.

현재 클럽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의해 종무별(복싱, 축구, 탁구, 테니스) 엘리트 및 생활체육 회원 운영 및 문화체육센터, 춘향골다목적구장 시설대관 등 잠정적 중단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을 희망하는 시설과 사업장은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063-631-0133)나 클럽(063-634-9333)으로 연락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